



KBS 상세 분석

2026-05-12_조선족-경계에 서다_풀영상_창 547회_KBS 26.5.12._

방송: 2026-05-12 | 분석일: 2026-05-13 14:07

Version 2.8-detail | Universal 2.8-detail | Konverter 3.5 (2026-05-29) | 기준: 방송법 제6조

종합 점수

6.4/10

공정성 기준에서의 심각한 이탈. 높은 편차 수준

0 = 균형, 10 = 강한 편향/조작적

정치 스펙트럼

채플힐 전문가 조사 (CHES) 2024 기반 분류

채플힐 전문가 조사(CHES 2024)는 31개국 609명의 정치학자를 대상으로 한 학술 조사입니다. 각 정당은 0(극좌)에서 10(극우)까지의 척도로 평가됩니다.

정당	JP	RKP	DPK	RP	PPP
CHES	2.00	3.50	4.50	6.50	7.50
스펙트럼	좌파	좌파	중도	우파	우파

전체 경향은 0-10 척도로 표시됩니다 (0 = 강한 좌파 우대, 5 = 균형, 10 = 강한 우파 우대). 계산은 좌파와 우파 정당의 평균 우대 차이에 기반합니다 (CHES 2024에 따른 그룹화).

경향 (좌 - 우)

3.2 / 10

좌파 편향

0 1 2 3 4 5 6 7 8 9 10

← 좌파

우파 →

출처: Chapel Hill Expert Survey 2024 — chesdata.eu | [Jolly et al., Electoral Studies, 2022](#) | 임계값: [Pew Research Center](#)

이 섹션은 정치적 맥락을 제공하며 종합 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장: 다비드 Schlaepfer / Schlae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



정치적 지형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더불어민주당(DP)이 집권하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6월 3일 선거에서 49.4%를 득표하여 당선되었다. 주요 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PPP)이며, 조국혁신당(RKP), 진보당(JP), 개혁신당(RP)이 국회에 의석을 보유하고 있다.

정당	CHES 좌우 점수	의석 수	정부/야당	핵심 입장
더불어민주당 (DP)	4.5 (중도-좌)	~162	정부	대화 외교, 복지 확대, 검찰 개혁
국민의힘 (PPP)	7.5 (우파)	~107	야당	강경 대북 노선, 경제 자유화, 친미 동맹
조국혁신당 (RKP)	3.5 (좌파)	12	야당(진보)	검찰 개혁, 언론 독립, 재분배
진보당 (JP)	2.0 (극좌)	4	야당(진보)	반미군사주의, 노동권, 남북 대화
개혁신당 (RP)	6.5 (중도-우)	3	야당(보수)	친시장, 탈권위, PPP 비판

한국 정치의 핵심 갈등은 검찰 권력 개혁을 둘러싼 DP-PPP 대립, 윤석열 탄핵 이후 정치적 책임 공방, 대북 정책 방향(대화 대 제재), 그리고 이민·다문화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쟁으로 구성된다. 이민 문제는 전통적 좌우 구도와 다소 독립적으로 작동하며, 노동시장 보호론과 인구 위기 대응론이 충돌한다.

KBS는 방송법에 따라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 의무를 지는 공영방송이다. 방송법 제6조는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명시하며,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어야 함을 규정한다. KBS 이사회 구성은 정권 교체에 따라 변동되어 왔으며, 2025년 DP 집권 이후 진보 성향 인사 중심으로 재편되는 구조적 편향 가능성이 존재한다.

회장: 다비드 Schlaepfer / Schlae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



장 1 — 정당 정치적 편향

정당별 평가

정당	점수 (-5~+5)	방송 묘사 대 강령 입장
더불어민주당 (DP)	0	방송에서 직접 언급 없음 — 강령 입장(이민 포용, 다문화 정책): 방송의 전반적 논조가 DP의 이민 친화적 입장과 일치하나 당명은 등장하지 않음 — 간접적 일치
국민의힘 (PPP)	0	방송에서 직접 언급 없음 — 강령 입장(이민 제한, 사회통합 우선): 방송이 PPP 성향의 이민 제한론을 '혐오'와 연결하는 구조이나 당명은 등장하지 않음 — 간접적 왜곡
조국혁신당 (RKP)	0	방송에서 언급 없음
진보당 (JP)	0	방송에서 언급 없음
개혁신당 (RP)	0	방송에서 언급 없음

정당 편향 요약

- 가장 정확한 묘사: 해당 없음 (모든 정당 직접 언급 없음)
- 가장 강한 왜곡: 해당 없음 (직접 언급 없음)
- 0으로부터의 평균 편차: 0.0 (직접 언급 기준)
- 결론: 이 방송은 특정 정당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나, 이민 수용 친화적 논조는 DP의 이민·다문화 정책 방향과 구조적으로 일치하며, 이민 제한론을 '혐오'로 프레임하는 것은 PPP 성향의 이민 제한론을 간접적으로 도덕적으로 기각하는 효과를 낳는다. 정당 직접 언급이 없어 강령 정확성 점수 부여는 적절하지 않으나, 정치적 효과는 DP 친화적이다.

좌우 전체 경향

경향 점수: +1.8

(양수 = 좌파 친화적, 음수 = 우파 친화적, 0.0 = 균형)

분류: 좌파 친화적

회장: 다비드 Schlaepfer / Schlae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



Schweizerischer Verein für ausgewogene Berichterstattung
Association suisse pour une information équilibrée
Associazione svizzera per un reporting equilibrato

근거: 방송은 이민 수용 필요성을 자명한 전제로 설정하고, 이민 제한론을 혐오주의와 연결하며, 저출산 위기 해결책으로 이민 확대를 제시하는 논조를 일관되게 유지한다. 이는 한국 정치 지형에서 DP(4.5, 중도-좌) 및 RKP(3.5, 좌파)의 이민·다문화 정책 방향과 일치하며, PPP(7.5, 우파)와 RP(6.5, 중도-우)의 이민 제한·사회통합 우선 입장은 체계적으로 배제된다. 다만 이민 문제가 전통적 좌우 구도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2.0 미만으로 평가한다.

회장: 다비드 슬래퍼 / Schlä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



장 2 — 방송 정보 및 주제 틀

방송 기본 정보

- 제목: KBS 다큐멘터리 — 재중동포(조선족) 한국 이주·정착 특집 (추정)
- 날짜: 파일명에서 날짜 미확인 (내용상 2024~2025년 제작 추정)
- 길이: 약 48분 (타임스탬프 기준)
- 진행자/기자: 내레이터(성별 미확인), 현장 취재 기자 복수
- 등장 인물:

인물	기능	소속/분류	정치적 스펙트럼
조순열 씨 (순녀)	요양보호사, 재중동포	중국 동포 당사자	해당 없음
최용길 씨	건설 노동자, 재중동포	중국 동포 당사자	해당 없음
김미량 씨	호텔 직원, 재중동포 2세	중국 동포 당사자	해당 없음
전춘화 교수	중국동포 권익 활동가, 교수	동포 권익 옹호	진보 성향 추정
이주·노동 전문가 (익명)	이주민 정책 연구자	학계	중도-진보 추정
연변 동포 청년 복수	연변 거주 조선족 청년	중국 동포 당사자	해당 없음
대림동 행정서비스 업자	비자 대행업 종사자	중국 동포 당사자	해당 없음
도문 촌장 김경남 씨	전통가옥 보존 촌장	중국 동포 당사자	해당 없음

주요 주제

재중동포(조선족)의 한국 이주 역사, 노동 현장 기여, 사회적 편견 및 혐오 문제, 그리고 새로운 세대의 정체성과 미래 선택을 다룬 다큐멘터리.

균형 잡힌 방송을 위한 필요 관점 (8~10개)

- 재중동포의 노동 기여와 경제적 역할
- 재중동포에 대한 한국 사회의 편견과 미디어 왜곡 문제
- 재중동포 수용에 따른 내국인 노동시장 영향 (임금 하락, 일자리 경쟁)
- 비자 제도 및 법적 지위의 복잡성과 개선 필요성

회장: 다비드 Schlaepfer / Schlae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



- 대림동 등 집중 거주 지역의 지역사회 갈등 및 공존 사례
- 혐오 집회 참가자 측의 주장과 우려 (치안, 문화 충돌)
- 재중동포 2세·청년 세대의 정체성 혼란과 미래 전망
- 이민 정책 전반에 대한 정부 입장 및 제도 개선 방향
- 중국 내 조선족 공동체의 현황과 한국 이주 감소 추세
- 내국인 일반 시민의 다양한 시각 (찬반 포함)

각 관점 처리 여부 검토

[A] 처리됨

타임스탬프: 19:31~20:14 — 인용: "지금도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80% 이상이 중국동포입니다." / "수도권 같은 경우에 동포인력이 없다고 한다면 감병 시장은 금방 무너질 거예요." — 평가: 경제적 기여를 구체적 수치와 함께 충분히 다루었다.

[B] 처리됨

타임스탬프: 29:56~30:22 — 인용: "미디어에서 중국 동포를 왜곡된 형태로 그려내면서 오해와 편견이 확산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평가: 영화 속 부정적 묘사 문제를 전문가 발언으로 다루었으나, 반론 없이 단일 방향으로만 제시되었다.

[C] 거의 다루지 않음

타임스탬프: 28:51~29:07 — 인용: "노동 영역형에서의 경쟁일 수도 있고" — 평가: 내국인 노동시장 경쟁 우려를 이론적으로만 언급하고 실질적 데이터나 당사자 목소리 없이 즉시 반박 구도로 전환되었다.

[D] 부분적으로 처리됨

타임스탬프: 18:31~22:55 — 인용: "중국적인 동포들이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선 비자가 필요했습니다." — 평가: 비자 이원화 문제와 통합 과정을 다루었으나, 현행 제도의 구체적 문제점이나 개선 방향에 대한 정책 전문가 의견은 부재하다.

[E] 부분적으로 처리됨

타임스탬프: 32:12~32:39 — 인용: "대림역을 중심으로 반경 한 1km에 초등학교 한 여덟 개..." — 평가: 대림동 지역사회 현황을 소개했으나, 지역 내 갈등 사례나 공존 노력에 대한 균형 잡힌 서술은 미흡하다.

[F] 거의 다루지 않음

타임스탬프: 31:13~31:52 — 인용: "빨갱기는 대한민국에서 빨리 꺼져라" / "한국에서 저희 국민들 죽이고" — 평가: 혐오 집회 장면을 부정적 맥락으로만 삽입하였고, 집회 참가자들의 구체적 우려나 주장은 전혀 소개되지 않았다.

[G] 처리됨

타임스탬프: 38:51~44:50 — 인용: "중국에서도 인정을 못 받고 한국에서도 눈밖에 나려고 하고 하니까 이게 진짜 속상한 거지." — 평가: 연변 청년들의 정체성 고민과 미래 선택을 비교적 풍부하게 다루었다.

회장: 다비드 Schlaepfer / Schlä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



Schweizerischer Verein für ausgewogene Berichterstattung
Association suisse pour une information équilibrée
Associazione svizzera per un reporting equilibrato

[H] 매우 미흡

타임스탬프: 45:43~46:04 — 인용: "결국은 외부에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구성원을 받아들이고" — 평가: 이민 수용 필요성을 전문가가 주장하는 방식으로만 제시되었고, 정부의 공식 정책 입장이나 반대 논거는 부재하다.

[I] 부분적으로 처리됨

타임스탬프: 35:01~37:54 — 인용: "연변의 중심지 연계. 67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로 절반 정도는 한국계 중국인" — 평가: 연변 현지 상황을 소개했으나, 한국 이주 감소 추세나 중국 내 조선족 공동체 악화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J] 매우 미흡

타임스탬프: 28:07~28:47 — 인용: "KBS가 전국성인 13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 평가: 설문 결과를 수치로 제시했으나, 부정적 인식을 가진 일반 시민의 목소리는 직접 인터뷰 형태로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

회장: 다비드 Schlaepfer / Schlae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



장 3 — 15개 기준 세부 분석

하드팩트 — 계량 가능하고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9가지 기법

1. 전문가 선택

7/10

1 2 3 4 5 6 7 8 9 10

총점: 7/10

정의: 누가 전문가로 발언하는가?

전문가 1: 전춘화 교수 (중국동포 권익 활동가)

타임스탬프: 33:43~34:51

발언: "오랫동안 중국동포의 권익을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 "혐오가 어디까지 번질지 두렵다고 말합니다."

분류: 중국동포 권익 옹호 활동가이자 교수

누락된 반론: 이민 제한론자 또는 내국인 노동권 전문가

출처 심층 검토:

(a) 재원: 대학 소속 교수이나 동포 권익 활동을 병행하는 구조로, 중국동포 우호적 입장에 제도적 이해관계가 있다.

(b) 위임: 중국동포 권익 옹호가 명시적 활동 목표이므로 독립적 평가와 구조적으로 양립하기 어렵다.

(c) 신뢰도 매트릭스:

D1 이해충돌: -1 — 동포 권익 활동가로서 친동포 입장에 직업적 이해관계 존재

D2 개인적 위험: +1 — 소수자 옹호 입장은 일부 사회적 비용 수반

D3 전문성: +1 — 관련 분야 교수이나 옹호 활동과 학문적 중립성 혼재

D4 의견 일관성: +1 — 장기간 일관된 입장 유지

D5 감정화 대 데이터: -1 — "두렵다", "충격적" 등 감정적 언어 다수 사용

D6 출처 단계: 0 — 2차 해석 중심

• 총점: +1 → 신호등: 노란색

회장: 다비드 Schlaepfer / Schlae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



(c) **전문 역량:** 방송은 이 인물을 '교수'라는 직함으로 중립적 전문가처럼 제시하나, 실질적으로는 옹호 활동가다. 이는 기준 12(출처 선택)의 구조적 편향에 해당한다.

전문가 2: 이주·노동 정책 연구자 (익명)

타임스탬프: 18:08~18:28 / 45:43~46:04

발언: "한국의 노동 시장의 비전문 시장이 문을 개발하는 그 경로로 만들었던 겁니다." / "결국은 외부에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구성원을 받아들이고"

분류: 이주민 정책 연구자 (소속 불명)

출처 심층 검토:

- (a) 재원: 소속 기관 미공개로 독립성 검증 불가
- (b) 위임: 이민 수용 필요성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발언
- (c) 신뢰도 매트릭스:

- D1 이해충돌: -1 — 소속 불명, 이민 확대 지지 입장 일관
- D2 개인적 위험: 0 — 판단 불가
- D3 전문성: +1 — 이주 정책 분야 연구자로 추정
- D4 의견 일관성: +1 — 방송 내 일관된 입장
- D5 감정화 대 데이터: +1 — 일부 통계 활용
- D6 출처 단계: 0 — 2차 해석

• 총점: +2 → 신호등: 노란색

(c) **전문 역량:** 소속 미공개 상태에서 이민 확대 필요성만 주장하는 전문가를 중립적 연구자로 제시하는 것은 출처 투명성 원칙에 위배된다.

누락된 전문가 집단:

- 내국인 노동시장 보호론자 (노동경제학자)
- 이민 제한 정책 전문가
- 치안·사회통합 분야 전문가

출처 신뢰도 개요:

출처	D1	D2	D3	D4	D5	D6	Total	신호
출처 심층 검토	-1	+1	+1	+1	-1	0	+1	노란색
출처 심층 검토	-1	0	+1	+1	+1	0	+2	노란색

회장: 다비드 Schlaepfer / Schlae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



Schweizerischer Verein für ausgewogene Berichterstattung
Association suisse pour une information équilibrée
Associazione svizzera per un reporting equilibrato

요약: 등장한 전문가 2인 모두 이민 수용 친화적 입장을 가지며, 반대 입장의 전문가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두 전문가 모두 신호등 노란색으로, 중립적 전문가로 제시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회장: 다비드 슬래퍼 / Schlä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



2. 출처 선택							7/10		
1	2	3	4	5	6	7	8	9	10

1차 출처 없는 주장 = 벌점 (소문 검증)

총점: 7/10
정의: 어떤 출처가 인용되는가? 다양하고 독립적인가?
출처 1: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 용역 보고서

타임스탬프: 19:46~19:53 — 발언: "조사 대상 간병인 10명 중 네명이 중국 동포였습니다."

- (a) **재원:** 국가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발주 연구로 공공 재원
- (b) **구조적 이해충돌:** 간병 인력 부족 문제를 다루는 기관으로서 동포 노동력 의존도를 부각하는 방향에 제도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
- (c) **누락된 반론 출처:** 내국인 간병인 단체 또는 노동조합의 입장
 누락된 대항 출처: 이민 제한론을 지지하는 학술 연구 또는 내국인 노동시장 영향 분석 보고서

출처 2: KBS 자체 설문조사 (전국 성인 136명)

타임스탬프: 28:07~28:47 — 발언: "KBS가 전국성인 13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 (a) **재원:** KBS 자체 제작 — 방송사가 자신의 보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체 설문을 실시하는 구조
- (b) **구조적 이해충돌:** KBS가 동포 우호적 방향의 방송을 제작하면서 동시에 이를 뒷받침하는 설문을 직접 실시하는 것은 독립성 원칙에 위배된다.
- (c) 표본 136명은 통계적 대표성이 극히 낮으며, 방법론이 공개되지 않았다.
 누락된 대항 출처: 독립적 여론조사 기관의 이민 관련 여론 데이터

요약: 방송에서 인용된 출처는 모두 동포 우호적 결론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선택되었으며, 반대 입장을 지지하는 출처는 단 하나도 인용되지 않았다. KBS 자체 설문을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독립성 원칙에 위배된다.

회장: 다비드 Schlaepfer / Schlä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



3. 발언 시간 배분							7/10		
1	2	3	4	5	6	7	8	9	10

총점: 7/10

정의: 다양한 입장 간 발언 시간 배분.

추정 발언 시간:

- 재중동포 당사자 (순녀, 용길, 미량, 연변 청년 등): 약 22분 (46%)
- 동포 우호적 전문가/활동가: 약 8분 (17%)
- 내레이터/기자 (서술): 약 14분 (29%)
- 혐오 집회 참가자 (직접 발언): 약 0.5분 (1%)
- 반대 입장 일반 시민: 0분 (0%)
- 중립적 전문가: 0분 (0%)
- 기타 (음악, 환경음 등): 약 3.5분 (7%)

요약: 발언 시간의 약 63%가 동포 당사자 및 동포 우호적 전문가에게 배분되었으며, 반대 입장 인물의 직접 발언은 사실상 전무하다. 이는 방송법 제6조의 균형 원칙에 위배되는 심각한 시간 배분 불균형이다.

회장: 다비드 Schlaepfer / Schlä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



4. 선택적 생략								8/10	
1	2	3	4	5	6	7	8	9	10

총점: 8/10

정의: 관련성이 있음에도 보여주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누락 1:

맥락: 혐오 집회 참가자들의 구체적 주장과 우려

관련 타임스탬프: 31:13~31:52

효과: 집회 참가자들의 발언을 "빨갱기는 꺼져라", "죽이고" 등 극단적 구호만 편집하여 제시함으로써, 이들의 실질적 우려(치안, 문화 갈등, 노동시장 경쟁 등)는 완전히 삭제된다. 시청자는 반대 입장이 오직 혐오에서만 비롯된다는 인상을 받는다.

누락 2:

맥락: 내국인 저임금 노동자의 경험과 목소리

관련 타임스탬프: 07:48~07:53 ("2000년대 총 한국 노동자들이 떠나간 자리를 중국 동포들이 채웠고")

효과: '한국 노동자들이 떠난 자리'라는 표현은 경쟁 관계를 암시하지만, 실제로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 하락을 경험한 내국인 노동자의 목소리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이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일방적 서술을 가능하게 한다.

누락 3:

맥락: 재중동포 관련 실제 범죄 사례 또는 사회 문제

관련 타임스탬프: 30:36~30:51 (범죄율 통계 제시)

효과: 인구 천 명당 범죄율이 내국인보다 낮다는 통계를 제시하면서도, 특정 유형의 범죄(예: 불법 체류, 특정 지역 집중 범죄)에 대한 세부 데이터나 피해자 목소리는 완전히 생략된다. 통계의 맥락과 한계에 대한 설명도 없다.

요약: 방송은 재중동포에 불리한 정보(내국인 피해 사례, 반대 입장의 논거, 정책 비용)를 체계적으로 생략하여 단일 방향의 서사를 구축한다. 이는 방송법 제6조의 균형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회장: 다비드 Schlaepfer / Schlae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



Schweizerischer Verein für ausgewogene Berichterstattung
Association suisse pour une information équilibrée
Associazione svizzera per un reporting equilibrato

누락된 목소리

- 내국인 저임금 노동자: 동포 유입으로 인한 임금 하락 및 일자리 경쟁 경험을 직접 증언할 수 있었다.
- 혐오 집회 참가자 또는 이민 제한론자: 집회 참가 이유와 구체적 우려를 설명할 수 있었다.
- 이민 정책 비판 전문가: 무분별한 이민 확대의 사회적 비용을 분석할 수 있었다.
- 대림동 한국인 원주민 주민: 지역사회 변화에 대한 복합적 감정을 전달할 수 있었다.
- 법무부·고용노동부 관계자: 현행 비자 제도의 정책적 근거와 한계를 설명할 수 있었다.
- 범죄 피해자 또는 치안 우려 시민: 통계 반박 이전에 실제 경험 기반 우려를 제시할 수 있었다.
- 중국 정부 또는 중국 내 조선족 정책 전문가: 중국 측 시각과 조선족 정체성 문제의 복잡성을 보완할 수 있었다.

회장: 다비드 슬래퍼 / Schlä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



5. 수치 조작										5/10
1	2	3	4	5	6	7	8	9	10	

완전한 수치에는 절대값, 비율(%), 추세가 포함됨

총점: 5/10
정의: 통계의 선택적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사용.

발견 1:

타임스탬프: 30:36~30:51

수치: "인구 천명당 범죄를 보면 우리 일반 내국인들 일반 평균 수준이 20건이 넘어요. 근데 중국 동포는 그거보다 훨씬 더 낮고 한 2분 정도 수준입니다."

누락된 맥락: ① 이 통계의 출처와 조사 연도가 명시되지 않았다. ② '피의자' 기준인지 '유죄 판결' 기준인지 불명확하다. ③ 범죄 유형별 세분화 없이 전체 평균만 제시한다. ④ 불법 체류자 포함 여부가 불명확하다. ⑤ 내국인 20건 대비 동포 2건이라는 10배 차이의 원인 분석이 없다.

효과: 재중동포의 범죄율이 내국인보다 현저히 낮다는 인상을 주어 치안 우려를 전면 부정하는 근거로 사용되나, 통계의 신뢰성과 맥락이 검증되지 않았다.

발견 2:

타임스탬프: 28:07~28:47

수치: "KBS가 전국성인 13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 "중국 동포의 경우 호감도는 8.4%에 그쳤습니다."

누락된 맥락: 136명은 통계적 대표성이 매우 낮은 표본이다. 표본 추출 방법, 조사 시기, 오차 범위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이 수치를 '전국' 여론으로 제시하는 것은 과장이다.

효과: 소규모 비대표 표본을 전국 여론으로 제시하여 재중동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심각성을 과장하고, 이를 편견 문제의 근거로 활용한다.

요약: 방송은 동포 우호적 결론을 지지하는 통계는 출처·맥락 없이 제시하고, 표본 대표성이 낮은 자체 설문을 전국 여론으로 제시하는 이중적 수치 활용 패턴을 보인다.

회장: 다비드 Schlaepfer / Schlä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



6. 접촉에 의한 오염										5/10
1	2	3	4	5	6	7	8	9	10	

총점: 5/10

정의: 부정적 집단/아이디어와의 연관을 통한 신뢰 훼손.

연관 1:

타임스탬프: 29:43~29:53

인용: "넌 누구야? 받으러 왔는데 뭐 그것까지 알아야 되니?" / "특사를 죽이고 조식을 통째로 먹었던 말이야"

기법: 영화 속 조선족 악당 장면을 직접 삽입하여 '미디어 왜곡' 논의를 시작하는 구조이나, 이 장면 자체가 시청자에게 조선족-범죄 연상을 재활성화하는 역설적 효과를 낳는다.

효과: '왜곡을 비판한다'는 명목으로 왜곡된 이미지를 반복 노출시켜, 비판 의도와 무관하게 부정적 연상을 강화할 수 있다.

연관 2:

타임스탬프: 31:13~31:52

인용: "빨갱기는 대한민국에서 빨리 꺼져라" / "한국에서 저희 국민들 죽이고 살고인내고"

기법: 혐오 집회 참가자의 가장 극단적 발언을 선택적으로 편집하여, 동포 유입에 우려를 가진 모든 시민을 극단주의자와 동일시하는 연좌 구도를 형성한다.

효과: 이민 제한론 전반이 혐오주의와 동일시되어, 정당한 정책 논쟁이 도덕적으로 오염된다.

연관 체인 (해당 없음): 명시적 연관 체인은 없으나, 영화 악당 장면 → 혐오 집회 → 편견이라는 암묵적 연결 구조가 존재한다.

요약: 방송은 동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비판'한다는 명목으로 해당 이미지를 반복 노출하고, 반대 입장 전체를 극단적 혐오주의와 연결하는 이중적 연좌 구조를 사용한다.

회장: 다비드 Schlaepfer / Schlae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



7. 타이밍									6/10	
1	2	3	4	5	6	7	8	9	10	

총점: 6/10

정의: 정보의 전략적 배치 (시작/중간/끝).

발견 1:

위치: 00:29~04:05 (시작부)

내용: "19세기 한반도에서 온 이주민들이 고국의 생활양식을 가져온 겁니다." / 도문 전통 한옥 마을 영상

타이밍 효과: 방송 첫 4분을 민족적 연대감과 향수를 자극하는 영상으로 채워 시청자의 감정적 틀을 설정한다. 이후 모든 논쟁적 내용은 이 감정적 틀 위에서 처리된다.

발견 2:

위치: 31:13~31:52 (중반부, 혐오 집회 장면)

내용: 혐오 집회 극단적 구호 → 즉시 반대 집회 및 교사·주민 반응으로 전환

타이밍 효과: 혐오 집회를 중반부에 배치하여 감정적 충격을 주고, 즉각적인 반박(반대 집회, 전문가 비판)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통해 반대 입장이 도덕적으로 패배하는 서사를 구성한다.

발견 3:

위치: 45:19~48:07 (마무리부)

내용: "국경에 한계 없이 기회를 따라 움직이는 새로운 동포 세대가 등장한 겁니다." / 희망적 음악과 함께 마무리

타이밍 효과: 방송을 희망적·긍정적 메시지로 마무리하여 시청자에게 '동포 수용은 미래 지향적'이라는 인상을 남긴다. 앞서 제기된 갈등과 우려는 해소된 것처럼 처리된다.

요약: 방송은 시작(민족 감성 자극) → 중반(혐오 집회 도덕적 패배 구성) → 마무리(희망적 통합 메시지)의 3단계 감정 설계를 통해 시청자를 특정 결론으로 유도한다.

회장: 다비드 Schlaepfer / Schlae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



8. 선택적 분노									6/10
1	2	3	4	5	6	7	8	9	10

분노 = 편향. 선택적 분노는 발견을 강화함. 점수 = 분노 수준 (0-5) + 선택성 (0-5)

총점: 6/10
정의: 특정 입장에는 분노하지만 비교 가능한 다른 입장에는 그렇지 않음.
방법론적 원칙 (v2.7): 모든 평가 전에 촉발 사건을 문서화해야 한다. 반응은 비교 가능한 촉발 사건이 다른 입장에서 유사한 반응을 유발하지 않았을 때만 선택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발견 1:

타임스탬프: 31:58~32:39

촉발 사건: 혐오 집회 참가자들이 대림동에서 구호를 외치는 사건

반응: "이에 교사들과 지역 주민들은 혐오 반대 집회로 맞섰습니다." / "누군가의 주어지에 들어가서 입에 담지 못할 부어들을 갖다가 계시하고 외치면서 그들을 공격했던 것이죠."

비교: 재중동포 집중 거주로 인해 지역 문화가 변화하거나 내국인 주민이 불편을 겪는 사건 — 반응: 없음

비대칭: 혐오 집회에 대해서는 강한 도덕적 비판 언어를 사용하는 반면, 동포 집중 거주로 인한 내국인 주민의 불편이나 갈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비판적 반응도 없다.

발견 2:

타임스탬프: 29:56~30:22

촉발 사건: 영화에서 조선족을 악당으로 묘사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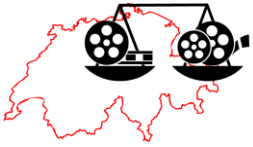
반응: "미디어에서 중국 동포를 왜곡된 형태로 그려내면서 오해와 편견이 확산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동포들을 폭력 집단으로 매도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는 점도 매우 우려스럽다."

비교: 재중동포 관련 실제 범죄 사건이 내국인에게 미친 피해 — 반응: 없음

비대칭: 동포에 대한 미디어 왜곡에는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동포 관련 실제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어떠한 공감적 반응도 없다.

요약: 방송은 동포에 대한 부정적 묘사나 혐오 표현에는 강한 도덕적 반응을 보이는 반면, 동포 유입으로 인한 내국인의 피해나 우려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무반응으로 일관하여 선택적 분노의 패턴이 명확하다.
--

회장: 다비드 슬래퍼 / Schlä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



Schweizerischer Verein für ausgewogene Berichterstattung
Association suisse pour une information équilibrée
Associazione svizzera per un reporting equilibrato

회장: 다비드 슬래퍼 / Schlä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



9. 완전성									6/10
1	2	3	4	5	6	7	8	9	10

재중동포는 19세기~일제강점기 이주민의 후손으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본격적으로 한국에 유입되었다. 현재 66만 명 이상이 국내에 체류하며 건설·간병·서비스업 등 이른바 '3D 업종'의 핵심 노동력을 담당한다. 한국 사회에서 이들에 대한 호감도는 8.4%로 다른 동포 집단(30% 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영화·미디어의 부정적 묘사가 편견 형성에 기여했다는 비판이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 속에서 이민 정책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다뤄진 관점의 비율

반전: 원래 값은 커버리지 측정(높을수록 좋음). 편차로 표시(높을수록 큰 공백).



소프트팩트 — 6가지 정성적 기법

10. 틀 설정

7/10

1

2

3

4

5

6

7

8

9

10

총점: 7/10

정의: 주제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틀 지우는가?

발견 1:

타임스탬프: 00:29~04:05

인용: "19세기 한반도에서 온 이주민들이 고국의 생활양식을 가져온 겁니다."

조작: 재중동포를 '고국을 떠난 민족'으로 프레임하여 한국과의 혈연적·문화적 연속성을 강조한다.

왜 문제인가: 이 틀은 이후 모든 논의를 '같은 민족이므로 포용해야 한다'는 전제 위에 올려놓아, 이민 정책에 대한 중립적 검토를 구조적으로 어렵게 만든다.

발견 2:

타임스탬프: 12:34~12:41

인용: "한국인들이 깊이하는 고된 일자리부터 자리가 났고 한국에 오자마자 돈을 벌기 위해선 그 빈자리부터 들어가야 했습니다."

조작: 재중동포의 노동을 '한국인이 기피한 자리를 채운 것'으로 프레임하여 내국인 노동시장 경쟁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

왜 문제인가: '빈자리'라는 표현은 경쟁 관계를 부정하는 전제를 내포하며, 이는 검증되지 않은 경제적 주장이다.

발견 3:

타임스탬프: 31:58~32:01

인용: "이에 교사들과 지역 주민들은 혐오 반대 집회로 맞섰습니다."

조작: 혐오 집회를 '혐오'로 규정하고, 반대 집회를 '지역 주민'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프레임한다.

왜 문제인가: 혐오 집회 참가자들의 주장은 '혐오'라는 레이블로 내용 검토 없이 기각되는 반면, 반대 집회는 정당한 시민 반응으로 제시된다.

회장: 다비드 Schlaepfer / Schlä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



Schweizerischer Verein für ausgewogene Berichterstattung
Association suisse pour une information équilibrée
Associazione svizzera per un reporting equilibrato

요약: 방송 전체가 '민족적 연대 → 노동 기여 → 편견 피해자'라는 단일 서사 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틀에서 벗어나는 관점은 체계적으로 배제된다.

회장: 다비드 Schlaepfer / Schlae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



11. 단어 선택과 개념									6/10
1	2	3	4	5	6	7	8	9	10

총점: 6/10

정의: 어떤 언어가 사용되는가? 어떤 함의가 설정되는가?

발견 1:

타임스탬프: 18:05~18:08

인용: "우리 한민족의 뿌리가 있는 사람들인데"

조작: '우리'라는 포용적 1인칭 복수를 사용하여 재중동포를 한국인과 동일 집단으로 언어적으로 통합한다.

왜 문제인가: 중립적 대안은 "한민족 혈통을 가진 중국 국적자"이며, '우리'는 정책 논의에서 중립성을 훼손하는 감정적 언어다.

발견 2:

타임스탬프: 31:13~31:15

인용: "빨갱기는 대한민국에서 빨리 꺼져라"

조작: 혐오 집회의 가장 극단적 발언만을 선택적으로 인용하여 집회 전체를 극단주의로 표상한다.

왜 문제인가: 집회 참가자들의 다양한 주장 중 가장 자극적인 발언만 편집하여 반대 입장 전체를 비이성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체리피킹이다.

발견 3:

타임스탬프: 29:56~29:59

인용: "미디어에서 중국 동포를 왜곡된 형태로 그려내면서 오해와 편견이 확산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조작: '왜곡', '오해', '편견'이라는 부정적 함의의 단어를 연속 사용하여 재중동포에 대한 부정적 인식 자체를 비합리적인 것으로 규정한다.

왜 문제인가: 일부 우려가 실제 경험에 기반할 수 있음에도, 이를 모두 '왜곡'과 '편견'으로 범주화하는 것은 정당한 비판을 차단한다.

요약: 방송은 '동포', '우리', '뿌리' 등 감정적 포용적 언어를 일관되게 사용하는 반면, 반대 입장은 '혐오', '편견', '왜곡'으로 규정하는 이중적 언어 전략을 구사한다.

회장: 다비드 Schlaepfer / Schlae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



Schweizerischer Verein für ausgewogene Berichterstattung
Association suisse pour une information équilibrée
Associazione svizzera per un reporting equilibrato

회장: 다비드 슬래퍼 / Schlä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



12. 진행 형태									4/10
1	2	3	4	5	6	7	8	9	10

총점: 4/10

정의: 질문, 개입, 공감 표현에서의 비대칭성.

방법론적 원칙 (v2.7): 모든 평가 전에 촉발 사건을 문서화해야 한다. 개입은 다른 게스트에게 유사한 촉발 사건이 있었으나 유사한 개입이 없었을 때만 비대칭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발견 1:

타임스탬프: 13:12~13:14

촉발 사건: 순녀 씨가 요양보호사 경력을 설명하는 중

인용 (진행자): "그런 감병인 일은 한 얼마 정도 하셨던 거예요? 요양봉사이죠?"

비교: 혐오 집회 참가자나 반대 입장 인물에게는 유사한 경청형 질문이 제공되지 않았다. 혐오 집회 장면은 인터뷰 없이 영상만 삽입되었다.

비대칭: 동포 당사자에게는 경험을 충분히 서술할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반대 입장 인물은 인터뷰 대상 자체에서 배제되었다.

발견 2:

타임스탬프: 15:55~15:57

촉발 사건: 용길 씨가 추락 사고 경험을 서술하는 중

인용 (내레이터): "타양사리가 쉽지 않을 걸 알면서도 이들은 왜 한국에 왔던 걸까?"

비교: 내국인 노동자의 어려움이나 동포 유입으로 인한 내국인 피해에 대해서는 유사한 공감적 내레이션이 없다.

비대칭: 동포의 고난에는 감정적 공감 내레이션을 삽입하는 반면, 내국인의 유사한 어려움은 서술 대상에서 제외된다.

발견 3:

타임스탬프: 47:16~47:18

촉발 사건: 방송 마무리 단계

인용 (내레이터): "우리 곁에 머물고 싶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회장: 다비드 Schlaepfer / Schlä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



Schweizerischer Verein für ausgewogene Berichterstattung
Association suisse pour une information équilibrée
Associazione svizzera per un reporting equilibrato

비교: 방송 전체에서 '왜 일부 한국인은 동포 유입을 우려하는가?'라는 대칭적 질문은 제기되지 않는다.

비대칭: 동포의 한국 정착 의지를 긍정적으로 마무리하는 질문만 제시되며, 반대 입장에 대한 대칭적 탐구는 없다.

요약: 진행자와 내레이터는 동포 당사자에게 일관되게 공감적·경청적 태도를 보이는 반면, 반대 입장 인물은 인터뷰 대상에서 원천 배제되어 비대칭성이 구조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회장: 다비드 슬래퍼 / Schlä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



13. 질문 비대칭									6/10	
1	2	3	4	5	6	7	8	9	10	

총점: 6/10

정의: 다른 인물에게 다르게 어렵거나 쉬운 질문.

비대칭 1:

순녀 씨에게, 13:12: "그런 감병인 일은 한 얼마 정도 하셨던 거예요?" — 부드러운 경험 서술 유도형

혐오 집회 참가자에게: 질문 없음 — 인터뷰 자체 없음

비교: 동포 당사자에게는 경험과 감정을 충분히 서술할 기회를 주는 개방형 질문을 제공하는 반면, 반대 입장 인물에게는 어떠한 질문도 제기되지 않는다.

비대칭 2:

미량 씨에게, 21:43~21:56: "어렵게 최종 합격한 회사에서 첫 출근을 앞두고 합격 취소 통보를 받기도 했는데요." — 피해 경험을 부각하는 서술형 질문

내국인 노동자에게: 질문 없음 — 인터뷰 자체 없음

비교: 동포의 제도적 피해는 구체적 사례로 심층 취재하는 반면, 내국인의 유사한 피해 경험은 취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약: 방송은 동포 당사자에게는 경험과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개방형·공감형 질문을 제공하는 반면, 반대 입장 인물은 인터뷰 대상 자체에서 배제하여 질문 비대칭이 구조적으로 발생한다.

회장: 다비드 Schlaepfer / Schlae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



14. 허위 균형									3/10
1	2	3	4	5	6	7	8	9	10

총점: 3/10

정의: 실제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인위적 균형을 만드는 것.

발견 1:

타임스탬프: 28:51~29:07

구성: "한 사회에서 특정 집단이 너무 커지면은 사람들은 그것을 위협으로 느낀다라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노동 영역형에서의 경쟁일 수도 있고" → 즉시 "실질적으로 한 30년 동안 이분들이 한국 사회가 가지 않는 부분을 채웠고"로 전환

분석: 반대 입장을 이론적으로 잠깐 언급한 후 즉각 반박하는 구조는 형식적 균형처럼 보이지만, 반대 입장에 실질적 발언 기회를 주지 않는 허위 균형이다. 그러나 이 방송은 허위 균형보다는 아예 균형을 시도하지 않는 방향에 가깝다.

요약: 이 방송은 허위 균형보다는 균형 자체를 포기한 구조에 가깝다. 반대 입장을 형식적으로라도 제시하는 시도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허위 균형 기법의 적용 빈도는 낮다.

회장: 다비드 Schlaepfer / Schlae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



15. 의제 설정							7/10		
1	2	3	4	5	6	7	8	9	10

총점: 7/10

정의: 무엇이 정상/당연한 것으로 간주되는가? 무엇이 의제에 오르지 않는가?

발견 1:

설정된 의제 요소: 재중동포의 한국 사회 기여는 자명한 사실이다.

타임스탬프: 19:59~20:14 — 근거: "동포가 빠져나가면 상당수 건설 현장의 숙련 시장이 어려울 거로 봅니다." / "감병 시장은 금방 무너질 거예요."

대안 의제: 동포 의존도를 줄이고 내국인 노동력을 육성하는 정책 방향, 또는 자동화·기술 혁신을 통한 노동력 문제 해결 방안

발견 2:

설정된 의제 요소: 재중동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미디어 왜곡에서 비롯된 편견이다.

타임스탬프: 30:29~30:32 — 근거: "그렇다면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과 현실은 얼마나 다를까?"

대안 의제: 부정적 인식의 일부가 실제 경험에 기반할 가능성, 또는 문화적 갈등의 실질적 원인 분석

발견 3:

설정된 의제 요소: 저출산·고령화 위기 해결을 위해 이민 수용은 불가피하다.

타임스탬프: 45:43~46:04 — 근거: "결국은 외부에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구성원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또 우리 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라고 보거든요."

대안 의제: 이민 확대의 사회적 비용, 사회통합 실패 사례, 이민 이외의 인구 위기 대응 방안

요약: 방송은 '동포 기여 = 자명', '부정적 인식 = 편견', '이민 수용 = 불가피'라는 세 가지 전제를 의제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반론은 의제 자체에서 배제한다.

회장: 다비드 Schlaepfer / Schlae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



장 4 — 종합 평가

15개 기준 종합 평가

개별 점수 — 전체 15개 기준

번호	기준	Score	등급
1	전문가 선택	7/10	뚜렷한 불균형
2	출처 선택	7/10	뚜렷한 불균형
3	발언 시간 배분	7/10	뚜렷한 불균형
4	선택적 생략	8/10	뚜렷한 불균형
5	수치 조작	5/10	상당한 불균형
6	접촉에 의한 오염	5/10	상당한 불균형
7	타이밍	6/10	상당한 불균형
8	선택적 분노	6/10	상당한 불균형
9	완전성	6/10	상당한 불균형
10	틀 설정	7/10	뚜렷한 불균형
11	단어 선택과 개념	6/10	상당한 불균형
12	진행 행태	4/10	경미한 불균형
13	질문 비대칭	6/10	상당한 불균형
14	허위 균형	3/10	경미한 불균형
15	의제 설정	7/10	뚜렷한 불균형

하드팩트 점수 (1-8)

6.7/10

공정성 기준에서의 심각한 이탈. 높은 편차 수준

소프트팩트 점수 (9-14)

6.0/10

상당한 불균형

회장: 다비드 Schlaepfer / Schlae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



Schweizerischer Verein für ausgewogene Berichterstattung
Association suisse pour une information équilibrée
Associazione svizzera per un reporting equilibrato

종합 점수

6.4/10

공정성 기준에서의 심각한 이탈. 높은 편차 수준

Hardfacts와 Softfacts 평균

회장: 다비드 슬래퍼 / Schlä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



범례 — 점수 정의

기준별 개별 점수 (0-10)

0	소견 없음	관련 이상 사항이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1-2	약한 소견	균형에 실질적 영향이 없는 경미한 이상.
3-4	경미~중간 소견	인식 가능한 경향; 영향 관련성 낮음~중간.
5	영향이 있는 중간 소견	시청자의 의견 형성 잠재력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불균형.
6	중요 소견 (임계값)	6점 이상은 '중요 소견'으로 분류됩니다.
7	중요 소견	명확하고 잘 문서화된 불균형, 뚜렷한 영향 관련성.
8-9	심각한 소견	뚜렷한 불균형; 이 기준에서 여러 문서화된 개별 소견.
10	최대 심각도	이 기준에서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불균형.

종합 편차 지수 — 해석 범위

0.0 - 2.5	특이사항 없음	유의미한 패턴이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방송이 공정성 기준을 충족합니다.
2.6 - 4.0	경미한 불균형	개별적 이상; 통계적으로 보이거나 허용 범위 내.
4.1 - 6.0	중대한 불균형	여러 중요 소견; 관점 다양성의 관련 있는 손상.
6.1 - 8.0	공정성 기준으로부터의 심각한 이탈. 높은 이탈도	방송 전반에 걸친 뚜렷한 패턴; 높은 영향 관련성.
8.1 - 10	근본적인 체계적 편향. 매우 높은 편향도	거의 모든 기준에서 최대 심각도; 체계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보도.

정당 편향 (-5 ~ +5)

-5~-3	강하게 불리	정당이 프레이밍, 방송 시간 또는 발표에서 현저히 과소 대표됨.
-2~-1	약간 불리	인식 가능하지만 경미한 불이익.
0	중립	감지 가능한 편애나 불이익 없음.

회장: 다비드 Schlaepfer / Schlae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



Schweizerischer Verein für ausgewogene Berichterstattung
Association suisse pour une information équilibrée
Associazione svizzera per un reporting equilibrato

+1~+2	약간 유리	인식 가능하지만 경미한 편애.
+3~+5	강하게 유리	정당이 프레이밍, 방송 시간 또는 발표에서 현저히 과대 대표됨.

회장: 다비드 슬래퍼 / Schlä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



장 5 — 법적 분류 (방송법 제6조)

방송법 제6조에 따른 평가

방송법 제6조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규정하며,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위반 1:

규범: 방송법 제6조 제2항 (다양한 의견의 균형 있는 반영)

위반 내용: 재중동포 이주·정착 문제에 대한 반대 입장 인물(혐오 집회 참가자, 내국인 노동자, 이민 제한론 전문가)이 인터뷰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

근거: 타임스탬프 31:13~31:52 — 인용: "빨갱기는 대한민국에서 빨리 꺼져라" (극단적 구호만 편집 삽입, 인터뷰 없음)

평가: 방송법 제6조 제2항은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것을 요구하나, 이 방송은 반대 입장의 실질적 발언 기회를 원천 차단하여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위반 2:

규범: 방송법 제6조 제1항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

위반 내용: KBS가 자체 실시한 136명 표본의 설문조사를 "전국성인" 여론으로 제시하여 통계적 객관성을 훼손하였다.

근거: 타임스탬프 28:07~28:47 — 인용: "KBS가 전국성인 13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평가: 136명은 전국 여론을 대표하기에 통계적으로 불충분한 표본이며, 방송사가 자신의 보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체 설문을 실시하고 이를 객관적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공정성 원칙에 위배된다.

위반 3:

규범: 방송법 제6조 제3항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 보도 금지)

위반 내용: 혐오 집회 참가자들의 주장을 내용 검토 없이 '혐오'로 규정하고, 이들의 구체적 우려를 방송에서 완전히 배제함으로써 특정 정치적 입장을 가진 시민 집단을 차별적으로 처우하였다.

근거: 타임스탬프 31:13~32:39 — 인용: "이에 교사들과 지역 주민들은 혐오 반대 집회로 맞섰습니다."

평가: 집회 참가자들의 주장이 혐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용 검토를 통해 판단되어야 하며, 방송이 이를 사전에 '혐오'로 규정하고 내용을 배제하는 것은 공정한 보도 원칙에 위배된다.

방송법 제6조 종합 평가

이 방송은 방송법 제6조가 요구하는 공정성·균형성 기준을 세 가지 측면에서 위반한다. 첫째, 반대 입장 인물의 인터뷰 완전 배제는 다양한 의견의 균형 있는 반영 의무를 위반한다. 둘째, 136명 표본의 자체 설문을 전국 여론으로 제시하는

회장: 다비드 Schlaepfer / Schlä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



것은 객관적 보도 의무를 위반한다. 셋째, 혐오 집회 참가자의 주장을 내용 검토 없이 '혐오'로 규정하고 배제하는 것은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 보도에 해당한다. 다만 이 방송이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되었다는 점과 재중동포 당사자의 인간적 경험을 조명하는 공익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은 고려되어야 하나, 이것이 방송법 제6조 위반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출처 심층 검토 (의무 — 모든 인용 전문 기관/NGO/자문 기관)

1.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 용역 보고서

1. 재원: 국가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발주, 공공 재원
2. 위임: 간병 인력 현황 파악이 목적으로, 동포 노동력 의존도를 부각하는 방향에 제도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
3. 이해충돌: 간병 인력 부족 문제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현행 동포 의존 구조를 정당화하는 방향의 연구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다.
4. 신뢰도 매트릭스: D1 이해충돌: -1 / D2 개인적 위험: +1 / D3 전문성: +2 / D4 일관성: +1 / D5 감정화 대 데이터: +2 / D6 출처 단계: +1 → 총점: +6 → 신호등: 녹색
5. 반론 출처: 내국인 간병인 단체 또는 노동조합의 입장이 인용되지 않았다.

2. KBS 자체 설문조사 (전국 성인 136명)

1. 재원: KBS 자체 제작 및 실시
2. 위임: 방송사가 자신의 보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체 설문을 실시하는 구조로, 독립성 원칙에 위배된다.
3. 이해충돌: KBS가 동포 우호적 방향의 방송을 제작하면서 동시에 이를 뒷받침하는 설문을 직접 실시하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이다.
4. 신뢰도 매트릭스: D1 이해충돌: -2 / D2 개인적 위험: 0 / D3 전문성: -1 (136명 표본, 방법론 미공개) / D4 일관성: 0 / D5 감정화 대 데이터: -1 / D6 출처 단계: -1 → 총점: -5 → 신호등: 빨간색
5. 반론 출처: 독립적 여론조사 기관(갤럽, 한국리서치 등)의 이민 관련 여론 데이터가 인용되지 않았다.

중요: '공영방송 KBS의 조사'라는 권위는 사회적 귀속이며, 136명 표본·방법론 미공개·자체 이해충돌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 이 출처는 신호등 빨간색으로, 방송에서 전국 여론의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법적 및 방법론적 참고

사실 인정이 아님	제시된 결과는 개인, 편집팀 또는 방송에 대한 사실적 결정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표준화된 운영화의 산물이며, 개인적 책임의 인정이 아닙니다.
법적 판단이 아님	집계된 이탈 지수는 방송법 제6조에 따른 법적 평가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특정 방송이 법적 요건을 위반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관할 당국(특히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회장: 다비드 Schlaepfer / Schlä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



Schweizerischer Verein für ausgewogene Berichterstattung
Association suisse pour une information équilibrée
Associazione svizzera per un reporting equilibrato

인과관계 증명이 아님

통계적 상관관계는 인과 관계나 편집 의도의 증거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탈 값은 주제 선택, 뉴스 환경, 정치적 논란 또는 형식 논리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도 판단이 아님

분석은 방송의 관찰 가능한 구조적 특성을 측정합니다. 7점은 중대한 불균형이 감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편집팀이 의도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론은 동거나 전략적 목표에 대해 주장하지 않습니다.

휴리스틱 비교 도구

이 지수는 수천 개의 방송에 걸친 비교 패턴 인식에 기여하며, 개별 세그먼트의 정밀한 메트릭 측정이 아닙니다. 임계값은 휴리스틱 방향 설정에 기여하며, 엄격한 법적 자격 부여가 아닙니다.

회장: 다비드 슬래퍼 / Schlä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



부록 1: 국내 방송법

법적 근거 한국 — KBS / MBC

법률

Broadcasting Act (방송법, Gesetz 번호 6139 vom 28.01.2000, zuletzt geändert 2025)

Verfassungsrechtliche Grundlage: Artikel 21 der Verfassung der Republik Korea (1987) garantiert Meinungs- und Pressefreiheit. Absatz 3: Standards für Nachrichtendienste und Rundfunkeinrichtungen werden durch Gesetz bestimmt.

관련 조항

- Art. 3 (방송의 자유): Freiheit der Programmgestaltung wird garantiert. Niemand darf die Programmgestaltung regulieren oder beeinflussen, es sei denn gemäss den Bedingungen dieses Gesetzes.
- Art. 5 (방송의 공적 책임): Öffentliche Verantwortung des Rundfunks. Rundfunk muss der demokratischen Grundordnung entsprechen.
- Art. 6 Abs. 1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Berichterstattung durch Rundfunk muss fair und objektiv sein.)

- Art. 6 Abs. 2: Rundfunk darf in seiner Programmgestaltung nicht aufgrund von Geschlecht, Alter, Beruf, Religion, Überzeugung, Schicht, Region oder Rasse diskriminieren.
- Art. 6 Abs. 3: Rundfunk muss die ethischen und emotionalen Empfindungen des Volkes respektieren und zum Schutz der Grundrechte sowie zur Förderung internationaler Freundschaft beitragen.
- Art. 6 (weitere Absätze): Pflicht zur Förderung von Meinungsvielfalt und ausgewogenen Darstellung verschiedener Standpunkte bei kontroversen Themen.
- Art. 43 (한국방송공사의 설립): Gründung der Korea Broadcasting Corporation (KBS) zur Schaffung einer fairen und gesunden Rundfunkkultur.
- Art. 44: Öffentliche Verantwortung von KBS.

시행규정 (Broadcasting Review Regulations)

- Art. 9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Fairness/Objektivität der Berichterstattung — detaillierte Regeln zur Nachrichtenberichterstattung.
- Art. 14: Objektivität bei Nachrichtenberichten.
- Art. 100: Sanktionsstufen: Korrekturempfehlung → Warnung → Busse → Aussetzung der Sendegenehmigung.

감독기관

- KMCC / KCC (방송통신위원회, Korea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Rundfunkpolitik, Lizenzvergabe, Untersuchung und Sanktionierung von Verstößen. Reform 2025: Umbenannt, neue BMCC als unabhängiger Puffer zwischen Politik und Rundfunk-Governance.

회장: 다비드 Schlaepfer / Schlä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



Schweizerischer Verein für ausgewogene Berichterstattung
Association suisse pour une information équilibrée
Associazione svizzera per un reporting equilibrato

- KCSC (방송통신심의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Inhaltliche Aufsicht. Prüft, ob Rundfunkinhalte Fairness (공정성), öffentliches Interesse (공익성) und öffentliche Verantwortung wahren (gemäss Art. 32). 9 Kommissare, vom Präsidenten ernannt (6 Regierungspartei, 3 Opposition).
-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언론중재위원회): Beschwerdeweg für Bürger. Korrekturanpruch, Gendarstellung, Nachberichterstattung. Einigung ist rechtsverbindlich.

공영방송사

Sender	Rechtsform	Finanzierung
KBS (한국방송공사)	Öffentlich-rechtliche Körperschaft	Rundfunkgebühren + Staatsmittel + Werbung (KBS-2)
MBC (문화방송)	AG, 70% Foundation for Broadcast Culture	Primär Werbung
EBS (한국교육방송공사)	Öffentliche Körperschaft	Lehrbuchverkauf + Werb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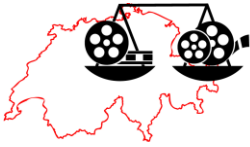
이의제기 절차

1. KCSC-Deliberationsverfahren (nachträgliche Prüfung)
2. Viewers' Complaint Settlement Committee (Art. 35, bei den Sendern)
3.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Korrektur, Gendarstellung)
4. Allgemeine Gerichte

비교 CH — KR

Aspekt	Schweiz (Art. 4 RTVG)	Südkorea (Art. 6 방송법)
Sachgerechtigkeit	Gesetzlich (Art. 4 Abs. 2)	Gesetzlich (Art. 6 Abs. 1: 공정하고 객관적)
Meinungsvielfalt	Gesetzlich (Art. 4 Abs. 4)	Gesetzlich (Art. 6: verschiedene Standpunkte)
Unparteilichkeit	Abgeleitet	Gesetzlich (공정성 = Fairness)
Politische Balance	Abgeleitet	Implizit (Meinungsvielfalt)
Unabhängige Beschwerdeinstanz	UBI (gesetzlich)	KCSC +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Inhaltsaufsicht	BAKOM/UBI	KCSC
Strukturelles Problem	Keine direkte politische Kontrolle	Regierungswechsel → Kaderwechsel in KBS/MBC

회장: 다비드 Schlaepfer / Schlae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



부록 2: 과학적 참고문헌

참고문헌

- Bennett, W. L. (1990). Toward a theory of press-state relation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Communication*, 40(2), 103–125.
- Berelson, B. (1952). *Content analysis in communication research*. Free Press.
- Entman, R. M. (1993).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4), 51–58.
- fög – Forschungszentrum Öffentlichkeit und Gesellschaft (2024). *Jahrbuch Qualität der Medien 2024*. Schwabe.
- Gilardi, F., Alizadeh, M. & Kubli, M. (2023). ChatGPT outperforms crowd workers for text-annotation tasks. *PNAS*, 120(30).
- Iyengar, S. & Kinder, D. R. (1987). *News that matters: Television and American opin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Jolly, S. et al. (2022). Chapel Hill Expert Survey trend file, 1999–2019. *Electoral Studies*, 75, 102420.
- Krippendorff, K. (2004). *Content analysis: An introduction to its methodology* (2nd ed.). Sage.
- McCombs, M. E. & Shaw, D. L. (1972). The agenda-setting function of mass media. *Public Opinion Quarterly*, 36(2), 176–187.
- Shoemaker, P. J. & Vos, T. P. (2009). *Gatekeeping theory*. Routledge.
- SVFAB (2026). *Methodenbericht v4.1: Zählbare Kriterien und Multi-Modell-Kreuzvalidierung*.
- Törnberg, P. (2023). ChatGPT-4 outperforms experts and crowd workers in annotating political Twitter messages. arXiv:2304.06588.

SVFAB Working Papers

- Schläpfer, D. (2026). Systematic AI-Assisted Analysis of Public Broadcaster Impartiality: A Scalable Methodological Framework for Measuring Structural Bias in Public Service Media. [SSRN 6688478](#)
- Schläpfer, D. (2026). Measuring Editorial Noise: A Retrospective Suppression Index for Public Broadcasting Content Analysis. [SSRN 6733280](#)
- Schläpfer, D. (2026). Source Traffic Light: A Six-Dimensional Credibility Framework for Systematic Source Assessment in Public Service Media. [SSRN 6733880](#)

David Schläpfer — ORCID: 0009-0000-5671-9266

SVFAB — 스위스 균형보도 협회 | 사서함, 8021 취리히 1 | www.svfab.ch | kontakt@svfab.ch | 방법론 보고서 2026년 3월 |
변환기 3.5 (2026-05-29)

회장: 다비드 Schlaepfer / Schlä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



Schweizerischer Verein für ausgewogene Berichterstattung
Association suisse pour une information équilibrée
Associazione svizzera per un reporting equilibrato

SVFAB 보고서 및 회원 가입

SVFAB.ch에서는 상세한 보고서를 받아보실 수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선적 건에 대한 보고서 생성 서비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유료 서비스).

저희는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해 회원 가입과 기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연락처 및 추가 정보:

www.SVFAB.ch | Kontakt@SVFAB.ch

은행 계좌: PostFinance – POFICHBE

IBAN: CH32 0900 0000 1675 6251 1

수취인: SVFAB, P.O. Box, CH-8021 Zurich 1

회장: 다비드 Schlaepfer / Schlae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



Schweizerischer Verein für ausgewogene Berichterstattung
Association suisse pour une information équilibrée
Associazione svizzera per un reporting equilibrato

SVFAB에서 다음 책들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은 www.svfab.ch 또는 kontakt@svfab.ch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스위스의 '보도 자료 절반 공개' 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불균형적인 보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취재진과 정보원 선정부터 시작하여 조작 기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어 누락, 프레임 설정, 시간적 프레임 설정, 연좌제, 감정적 이용, 맥락 제거 등 15가지 원칙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제시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이러한 기법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줌으로써 이해뿐 아니라 공감까지 이끌어냅니다.

선택 사양으로 트럼프 카드가 함께 제공됩니다.

오디오북으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인터뷰는 대화가 아닙니다. 누군가 대본을 써놓은 무대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언론에 먹칠을 하는 셈입니다. 좋은 인용구가 잘못 편집되고, 정확한 발언이 잘못된 맥락에서 전달되며, 솔직한 답변이 자백처럼 포장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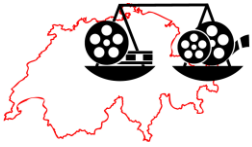
이 책은 언론 비평서가 아닙니다. 마이크 앞에 선 모든 사람을 위한 실용적인 도구 상자입니다.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가지 도구를 제공합니다. 인터뷰의 본질, 가장 흔한 7가지 함정, 세 가지 기본 원칙(앵커링, 프레임링, 경계 설정), 1시간 만에 인터뷰 준비하는 방법, 몸짓과 목소리 사용법, 인터뷰가 잘못될 경우 대처법, 그리고 인터뷰 후 중요한 점까지 다룹니다.

정치인, 활동가, 기업가, 내부고발자 등 대중의 시선을 받는 모든 사람이 언론의 흐름을 이해하고, 더 이상 수동적으로 따라가지 않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이즈로 휴대가 간편합니다. 준비, 참고, 후속 조치 및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를 위해.

회장: 다비드 Schlaepfer / Schlä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



Schweizerischer Verein für ausgewogene Berichterstattung
Association suisse pour une information équilibrée
Associazione svizzera per un reporting equilibrato



당신은 세상을 제대로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누군가가 씌운 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프레임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정교한 조작 기술입니다. 사실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믿고,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바꿉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매일 무의식적으로, 당신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딱딱한 교과서가 아닙니다. 재미있고, 직접적이며, 실생활 예시로 가득한 워크북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프레임에 담는지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어떻게 프레임에 담는지, 그리고 그것을 의식적이고 공정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프레임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더 명확하게 보고, 뉴스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며, 더 자신감 있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고, 다른 사람이 선택한 프레임에 쉽게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정치, 미디어,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가져온 다양한 연습 문제와 구체적인 예시, 그리고 중간중간 웃음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스타일 있게 프레임을 활용하세요. 프레임이 모든 것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회장: 다비드 슬래퍼 / Schlä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